
서 평

도시 담론들을 통해 도시와 문명 이해하기

[서평] 고일홍 외(2014),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하다』,
한길사, 410쪽.

박 배 형*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하다』(한길사, 2014년 3월)는 HK문명연구사업단의 문명공동연구총서 시리즈에서 4번째로 발간된 책이다. 이 책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 주로 도시에 대해 또는 도시와 문명에 대해 논했던 사상가들의 저술들에서 그 일부를 발췌·번역하여 엮은 것이다. 이 작업에는 모두 15인의 역자가 참여하였다. 이 책의 대표역자들이 그 서문 격인 「도시가 들려주는 문명 이야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이 기획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의 <공간과 지도>라는 공동연구조직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도시와 문명’ 세미나”(13쪽)가 놓여 있다. 이 책이 일종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명연구의 일환으로서 ‘도시와 문명’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조직하고 이런 공동연구 작업의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문명연구사업단의 연구목적상 적절하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서구어 ‘civilisation’ 또는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civilization’의 번역어로서 ‘문명’은 그 기원을 라틴어 ‘civilis’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군은 ‘civis’, ‘civitas’, ‘civitas’ 등이다. 여기서 ‘civitas’가 바로 ‘도시’, ‘공동체’, ‘국가’ 등을 의미하기에, 이로부터 도시와 문명의 불가분적인 관계가 드러난다. 즉 이는 도시가 문명 탄생의 기반임을, 도시 없는 문명이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 책의 서문은 “인류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자 보존 창고인 도시는 그 자체로 문명이다. 즉 문명은 도시에서 일어났고 도시는 문명을 빚어왔다”(13쪽)거나 “도시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라거나 “도시는 문명의 요람이자 삶의 공간”(5쪽)이라고 표현한다. 문명을 알기 위해서 도시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이처럼 뚜렷하다고 할 때, 도시에 대한 담론들을 모아 놓은 이 책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하다』는 HK문명연구사업단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과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역자들은 서문에서 이 책이 “시대와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시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유용한 입문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9년간 “인문학연구원 HK사업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자체평가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된 <인문학연구원 HK사업 진단평가>팀(이하 <진단평가>팀)의 평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팀의 보고서는 이 책에 대해 “비교적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택하였지만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을 나열하였기에 기획의도처럼 그 자체가 도시문명에 대한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인문학연구원 HK사업 진단평가』, 1쪽, 21쪽). 그렇지만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소개하고, 그 무수한 담론들을 통해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이끌어내하고자 기획”(13쪽)되었으며 “도시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줄 것”(6쪽)이라는 전망까지 그려보게 하는 이 책, 그리고 문명연구의 맥락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편집하고 각각의 텍스트 앞에 짧은 해설까지 포함시킨 이 책을 “자료집의 성격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한 것은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역자이자 집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야박한 것으로 느껴질 만하다. HK문명연구사업단의 일원이면서 지금 이 책의 서평을 쓰는 필자(이하 평자)는 오히려 문명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자료집의 출판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이와 같은 기초 작업이 너무 늦게 출판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싶다. 도시와 문명을 연결시키는 이런 주제는 문명연구사업단의 핵심 주제에 속할 것이고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연구가 개시되었을 것으로 평자는 예상한다. 그런데 이 책은 HK사업 기간의 약 3분의 2 가량이 지난 2014년에야 출판되었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가 후속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출판이 미처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역할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초 작업으로서 도시와 문명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발굴하여 담아낸 이 책이 좀 더 일찍 출판되고, 그런 담론들에 대한 해석과 토론이 사업단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의 3단계쯤에 가서는 이런 담론들 자체에 대한 심층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문명담론 내지 문명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어야만 문명연구사업의 목표들 중 하나인 새로운 문명론의 정립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평자의 기억으로는 사업단 내에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예컨대, 아우구스투스의 『신국론』에 대해서도, 토마스 홉스의 『시민에 관하여』에 대해서도, 짐멜의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 대해서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였다.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을 나열”했다는 <진단평가>팀의 평가는 지금껏 사업단에서 행해진 다른 공동연구에 대해서 지적되어 온 사항과도 일맥상통한다. 혹시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역자들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이 책은 ‘도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은 예컨대 개개의 글들이 주제에 얼마나 적합하며 또 서로 간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단평가>팀의 평가는 그러한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개개의 독립적인 글들을 단순히 모아서 출판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동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HK사업의 취지 중 하나는 학제적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 분과학문의 형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업단의 모든 공동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도시와 문명’이라는 공동연구 세미나를 배경으로 기획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공동연구 작업을 거쳤는지, 그 작업의 결과가 왜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문에 언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야만 이 책이 문명공동연구총서로 출판된 것의 타당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포함되었더라면 아마도 이 책에 대해 “자료집”에 불과하다거나 상이한 유형의 글들을 “나열”한 것이라는 <진단평가>팀의 평가는 어느 정도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자는 생각한다.

한편,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던 보이 경성을 걷다」라는 제목의 글은 소설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 경성의 풍경과 식민지 엘리트 청년의 내면세계를 묘사한 소설의 일부이다. 소설가 박태원을 사상가로 칭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지만 문학 속에서 그려진 경성의 모습에서 어떤 정연한 도시 담론의 전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즉 이 글은 대표역자들이 서문에서 말하듯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들의 도시와 문명에 대한 사유를 그들의 저술을 통해 읽어본다”(6쪽)는 이 책의 취지와 잘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3부는 “발전한 도시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쇠퇴하는가를 살펴보았다”(6쪽)고 서문에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제3부에 포함된, 장 자크 루소의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췌·번역한 글 「작은 도시가 아름답다」는 발전한 도시가 쇠퇴하는 양상을 제시한 글이 아니라, 발전한 대도시에서는 인간성이 타락하며, 소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루소의 신념을 서술한 글이다. 즉 그는 소도시에서의 삶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차라리 그의 글은 제4부인 “도시의 이상”에 집어넣는 것이 더 나을 법했다. 다른 한편, 제4부 “도시의 이상”에는 하이데거의 「건축, 거주, 사유」에서 발췌·번역한 글 「어머니의 대지로 돌아가는 길」이 들어가 있다. 이 글은 도시의 이상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아예 도시문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서문에는 이 글을 실은 이유에 해당하는 언급이 나와 있다. 즉 “하이데거의 글은 기술담론으로 전문화된 오늘날의 도시연구가들에게 도시란 무엇이며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도시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로서 읽힐 수 있다”(13쪽)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글은 오히려 이 책에 실린 글의 제목처럼 ‘어머니의 대지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의 글은 도시문명, 과학기술 문명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읽혀야 한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반문명적인 글은 다른 곳에 편성

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평자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몇몇 문제점들이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28가지씩이나 되는 텍스트들을 분류하여 정리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종의 예외적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책에 집어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차 판단하기 힘든 텍스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단순히 “자료집”이 아니면서 공동연구총서에 포함된, 공동연구의 산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면, 보다 체계적인 구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그랬어야만 자료를 “나열”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평자가 공동연구의 산물로서 이 책에 대해 평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HK문명연구사업단의 공동연구와 그것의 결과물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평자는 HK사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욱 바람직한 그리고 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문학 연구의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공동연구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에서 공동연구라는 방식은 HK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학계에서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던 연구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이 시작되어 이미 9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학이 이 시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학문적인 연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성행하던 때부터 공유된 현실인식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극복과 인문학 진흥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된 HK사업의 취지 중 하나도,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분과학문의 형태로는 불가능한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연

구를 학제적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문명 연구사업단에서도 개인적인 주해연구 외에 공동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인문학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축적된 경험도 따를 만한 매뉴얼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명연구사업단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공동연구의 모델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같은 인문학이라고는 하지만 십수 년을 각각의 분과학문 영역에서 연구해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방식은 그 성공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실험적 시도인 것이며, 그것의 정착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사업단의 연구진은 술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공동연구총서 시리즈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은 그간의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 평자는 지난 9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축적된 경험 자체가 사업단의 자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자산은 앞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 연구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자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축적된 경험이란 것은 연구자 개인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평자 자신도 개인적으로 여러 공동연구팀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후속 연구를 위한, 인간에 대한 학문 인문학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전공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동일한 주제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혼자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협업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등 쉽게 열거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공동연구

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품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경험 등도 평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다.

평자는 인문학에서 공동연구라는 방식이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채 여전히 실험 중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문명공동연구총서 시리즈의 4번째 책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한다』도 실험 중인 단계에서 나온 성과물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커다란 기대를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 사업단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필요할 것이다. <진단평가>팀의 평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